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49>

JCCT 2023-5-6

## 간호 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한 간호 의미고찰

### A study on the meaning of Death Obser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김미화\*

Mi-Hwa Kim\*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해 보는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M시 일개 대학 4학년의 간호학생으로 교육 과정 중 시뮬레이션을 이수한 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간호의 부분을 파악해 보도록 하는 자유형식의 보고서와 인터뷰를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Krippendorff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한 간호 의미를 분석한 결과 3개 범주, 10개 주제, 28개 의미 있는 진술로 도출되었다. 3개의 범주는 '가상의 간호', '생각 하는 간호', '더불어 함께 하는 간호'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은 가상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간호의 철학을 기반으로 예측 불가한 상황속의 간호를 풀어가는 나름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는 추후 다양한 임상현장과 흡사한 다양한 사례를 심도 깊고 학생의 경험을 인식하는 시뮬레이션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과 이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간호 대학생, 질적 연구, 시뮬레이션, 병원실습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hat explores the essential meaning of nursing through a simulation curriculum targeting nursing students. In this study, 18 students, who were 4th grade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M city, Gyeongsangbuk-do, completed a simulation during the curriculum. Data collection was done through free-form reports and interview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part of nursing they thought through simulation class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Krippendorff's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aning of nursing through simulation class, 3 categories, 10 topics, and 28 meaningful statements were derived. The three categories were derived as 'virtual nursing', 'thinking nursing', and 'together nurs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nursing students were seeking their own solution to solve nursing in unpredictable situations based on the philosophy of nursing through virtual simul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various and in-depth simulation education programs in the future.

**Key words** : Nursing student, Qualitative research, Simulation training, Hospital practice

#### I. 서 론

간호학은 이론과 실무를 함께 적용하여 임상현장으로 이행되는 실무중심 학문이다.[1] 이런 가운데 코로나

\*정희원,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접수일: 2023년 3월 1일, 수정완료일: 2023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25일

Received: March 1, 2023 / Revised: April 13, 2023

Accepted: April 25, 2023

\*Corresponding Author: kmh9781@hanmail.net

Dept. of Nursing, Daekyeung College, Korea

- 19의 전염병은 임상실습이 많은 간호학생들에게서 실습의 제한이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간호학교육에서 실습은 1004시간을 이수해야 하므로 그 비중은 매우 많다 [2]. 그럼에도 임상에서는 관찰영역의 제한으로 간호학생들의 실습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시뮬레이션 수업이며, 시뮬레이션 실습은 임상현장과 가장 흡사하게 만들어 안전하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수업이다 [3],[4].

시뮬레이션 교육은 인체모형을 이용하여 모형의 환자와 시나리오를 통해 학습자에게 임상실무능력의 기회를 부여 하는 학습방법이다[5].

시뮬레이션 교육은 2006년 이후부터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6], 이를 적용하여 실습을 병행하는 다양한 실습에 관해 시나리오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7]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시뮬레이션과 관련하여 양적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습 교육경험을[8], 간호대학생의 환자 역할 경험을 교육적 효과[9], 의사소통능력[10] 자기 주도학습능력[11], 윤리적 의사 결정[12] 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과 관련하여 양적연구는 다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간호는 시대가 변화하고, AI의 출현에도 간호의 독창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활용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13]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간호의 철학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시뮬레이션의 실행의 효과적인 측면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수업하면서 접하게 되는 간호에 대한 의미를 그들의 수업을 통해 경험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근본적인 간호를 실제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접목한 심도 깊은 통합적인 시뮬레이션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의 개인적 경험을 인식하는 학생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제공할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간호에 대한 근본 문제를 파악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간호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며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작성한

자가 보고서와 인터뷰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 Krippendorff [14]의 현상학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 2. 연구 자료수집 및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자는 K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간호학과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으로 1004시간의 임상실습을 완료한 학생으로 실습을 완료 후 시뮬레이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18명으로 학생의 성별 비율은 여학생 18명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4-26세로 평균 23세이었다. 연구 시작 전 18명의 학생을 전체모임을 실시하여, 연구의 목적과 결과의 사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연구의 결과는 간호학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의 철회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연구를 통해 알게 될 수 있는 개인 정보에 관해서는 연구가 종료되면서 바로 폐기됨을 알렸다. 연구의 절차와 목적 향후 결과의 반영에 대해 설명을 다 들은 학생들에게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그룹으로 나누어 질문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였으면 작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질문은 “실습을 종료 후 시뮬레이션의 수업은 본인에게 어떤 경험으로 남아있는가?” “실습과 다른 시뮬레이션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시뮬레이션 수업을 끝낸 시점에서의 본인의 감정은 어떠한지에 한가요?” 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작성은 수업을 종료하고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기록에 관해서는 참여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희망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참여자들은 24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본 연구에 이해도가 높고, 시뮬레이션 수업에 평소 질문과 관심이 많은 연구의 자진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시뮬레이션 수업을 하면서 그 속에서의 간호의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Colazzi(1978)[15]

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철저하게 분석을 수행하였다. 질문내용은 개방형의 형식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실습을 종료 후 시뮬레이션의 수업은 본인에게 어떤 경험으로 남아있는가?” “실습과 다른 시뮬레이션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시뮬레이션 수업을 끝낸 시점에서의 본인의 감정은 어떠한지에 한가요?” 이다. 시뮬레이션 수업에서 찾을 수 있는 간호의 의미를 최대한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바로 이 부분을 집중 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상실습을 1004시간 마치고 시뮬레이션 수업을 시행 후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용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 후 연구자는 필사된 내용을 수차례 정독하면서 반복하여 읽었으며, 연구시 제시된 내용과 나타난 주제에 따라 범주를 나누며, 또한 의미 있는 진술 내용을 추출하였다. 이를 비슷한 내용끼리 추출하고 이후 이를 범주화 하였으며, 이를 범주화 하고 범주화된 것을 다시 묶어 이를 개념화 하였다. 이후 질적 연구에 다양한 경험을 소유하고 간호학과 교수 2인과 다시 재범주화 하는 작업을 하였다.

#### 4 연구의질 확보

본 연구에서 Lincoln과 Guba[16]의 평가 기준에 따라, 질적 내용분석은 이론적 철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연구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17]. 연구의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 의 기준을 고려하였다. 이에 네 가지의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호학생들에게 시뮬레이션과 관련하여 사전 지식정도를 파악하고 수업시간과 연구를 위해 5번의 모임으로 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성(applicability) 자료에서 시뮬레이션에 간호철학의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심도 깊게 수집하여 내용을 포화시켰으며, 연구결과를 학생에게 제시시 긍정적인 결과를 공감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을 한 차원 더 높이려 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구 설계에서 부터 시뮬레이션과 관련 양적논문, 질적논문을 내용을 기록하며 질적 연구에 다

양한 경험을 가진 교수님 3명과 논의 하였고, 기록내용에 의미 있는 주제 모음과 범주화 하는데 가장 적합한 주제를 도출하기까지 수정 보완하였다. 중립성(neutra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편견으로 사고가 판단될 경우 판단중지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누락됨 없이 성실히 작성하고 최대한 의견을 첨가하지 않는 입장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 5.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다년간 질적 연구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매회 2번이상의 질적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하였다. 질적연구자의 자질을 연마하며, 질적연구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다. 매사 현상에 본질에 대해 탐구하며, 본질과 현상의 일어나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간호연구를 이수한 학생으로 연구경험 다수 있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알게 되는 간호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는 향후 다양하고 이론수업과 병행해야 하는 간호교육현장에서 시뮬레이션의 통한 간호는 더욱 철저하게 본질을 파악해야 하여 간호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Krippendorff[14]의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을 심도 깊게 분석하면서 유사한 것끼리 묶었으며, 내용의 정도에 따라 주제를 추상적이며 통합적인 의미로 형성하며 최종적으로 3개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즉, 3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16개의주제, 48개의 의미 있는 진술로 도출되었다. 이는 ‘예측이 불가한 상황의 간호’, ‘풀어야 하는 간호’, ‘철학이 필요한 간호’ 이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범주 1: 가상의 간호

‘간호로 기대되는 시뮬레이션’, ‘실제가 경험이 되는

수업', '예측할 수 없는 간호의 현상', '시물레이션의 시점에 대한 고민', '시물레이션을 통해서만 만나게 되는 환자', '시물의 또 다른 경험', '혼자가 아닌 함께의 수업', '코로나-19로 인한 간호교육의 또 다른 변화 형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시물레이션 교육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환자들의 형태가 예측하기 불가한 상황의 다양한 현상을 볼 수 있어 간호현상에 대해 낯선 것에 대한 상황에 현상을 파악해야 하는 것을 시사한 점이었다.

1) 주제 1: 간호로 기대되는 시물레이션

4학년이 되어서 SIM 실습이라는 교과목이 생겼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모형을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다. (참여자 1)

가장 어려웠던 점은 IV LINE 잡는 것과 환자의 상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참여자 3)

마지막 시물레이션 수업을 마치며 어쩌면 이런 시물레이션 수업을 3학년 때부터 성인, 여성, 아동, 지역 등 다양한 시물레이션 교과과로 운영되어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도 남았고, 점점 수업을 진행하며 다음 시나리오 대는 조금 더 수정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임할 수 있었기에...(참여자4)

2) 주제 2: 실체가 경험이 되는 수업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임상에 나갔다면 자신감도 부족하고 두려웠을 텐데 교수님의 자세한 피드백과 옆에서 지켜봐주며 직접 알려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참여자9)

기본간호 그리고 핵심 간호술을 진행하며 익혔던 간호술기를 다양한 상황에 접목 시킬 수 있어서 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참여자 13)

3) 주제 3: 적재적소의 간호수행에 어려움

어려웠던 점은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간호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10)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공부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만드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무엇이 대상자에게 필요한 간호인지, 내가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등의 생각을 하는데 급급하게 되었고, 이는 다른 간호수행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미흡한 결과를 이끌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0)

**범주 2: 생각 하는 간호**

'작은 간호의 효과', '하나가 모여 합작품이 되는 경험', '발달하는 간호술에 대한 적용', '나의 미흡함에 대한 보충'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시물레이션이 가상에서 이루어지나 생각을 하고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실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주제 1: 작은 간호의 효과

임상에서 배운 작은 디테일들이 시물레이션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간호행위를 하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15)

1학년에서 4학년 때까지 배운 간호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상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지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요 (참여자10)

수업에선 모든 술기를 복합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하고, 교수님께서 때마침 환자 상황을 구사해 주셔서 시야를 넓혀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참여자 7)

임상실습을 하고 난뒤 시물레이션 실습을 진행 하여서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활력징후를 체크하는 것과

청진을 통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참여자 3)

### 2) 주제 2: 하나가 모여 합작품이 되는 경험

내가 맡은 술기만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고 모든 술기를 잘 할 수 있게 공부했던 것 같고…….(참여자 7)

술기에 대한 이론을 백번 공부를 하는 것 보다 직접 한 번 연습해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맥주사와 같은 술기는 백번 연습해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참여자 6)

내가 미흡해 집중적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직접 움직여 수행해봄으로써 간호에 감을 잡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었고, 우선 순위…….(참여자 8)

시뮬레이션 수업을 진행하며 하나의 시나리오를 구동하기 위해 함께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을 기를 수 있었고, 실제 시나리오 구동을 통해서 환자 사정 능력, 임상 수행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7)

기본간호 그리고 핵심 간호술을 진행하며 익혔던 간호술기를 다양한 상황에 접목 시킬 수 있어서 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참여자 18)

### 3)주제 3: 나의 미흡함에 대한 보충

학기말쯤에는 서로 눈치와 손발이 척척 맞아서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간호를 적절하게 판단하여 환자에게 빠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5)

교수님께서 해주신 피드백과 조원들의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었고 다음번 시나리오 때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13)

## 범주 3: 더불어 함께 하는 간호

더불어 함께 하는 간호 에서는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간호’, ‘두려움을 뛰어 넘는 간호’, ‘철학이 필요한 간호’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혼자가 아닌 협업을 하면서 철저한 간호의 철학을 생기게 되는 과정을 배워가고 있었다.

### 1) 주제 1: 혼자 아닌 함께 하는 간호

임상실습은 병원의 현장을 체험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지만, 아직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 학생 간호사로서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간호를 제공한다가 보다 관찰 위주로 한계를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족했던 임상현장에서의 실습을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해 채워나갈 수 있었어요.(참여자 4)

무엇보다 환자에 대한 간호도 중요하지만 신속히 파악하는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적절하게 환자를 안심시키고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서적인 간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참여자9)

1학기 초반엔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간호사로서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참여자 11)

### 2) 주제 2: 두려움을 뛰어 넘는 간호

이렇게 시나리오에 따라 환자의 간호를 체계적으로 직접 해 볼 수 있고 실제 경험과 비슷하게 최대한 이루어지는 실습환경이 4학년 2학기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참여자 5)

친구들과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9)

부담감이 마냥 힘들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생생한 사례와 정말 리얼한 환경, 환자 모형이라서 만족스러웠습니다(참여자 11)

### 3) 주제 3: 철학이 필요한 간호

주어진 상황을 조원들과 협력하여 각자 일을 나누고 임상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상황들로 연습하고 시험까지 쳐보니 실습경험이 적어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채웠던 것 같다. (참여자 3)

1학기 초반엔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간호사로서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할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참여자 11)

예를 들어 심근경색 환자에게 5분 간격으로 NTG를 3회 투여했음에도 흉통이 가라앉지 않을 때 전반적으로 환자를 사정하고 V/S를 측정하여 의사에게 보고한 후 처방된 오더를 확인하여 환자의 상황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처방은 거를 수 있어야 하는데...(참여자 9)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면서 관찰한 질적 내용으로 분석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간호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해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관찰될 수 있는 간호의 의미를 면담과 자가 보고서를 통해서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의 범주와 9개의 주제 28개 의미있는 진술로 도출되었다. 이는 '가상의 간호', '생각하는 간호', '더불어 함께 하는 간호'이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학과 학생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진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체가 아닌 환자에 대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간호술과 함께 여러상황에 대해서 간호의 철학을 더욱 뚜렷하게 가져지는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 '가상의 간호'에서는 '간호로 기대되는 시뮬레이션', '실체가 경험이 되는 수업', '예측할 수 없는 간호의 현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만나게 되는 환자', '시뮬의 또 다른 경험', '혼자가 아닌 함께의 수업', '코로나-19로 인한 간호교육의 또 다른 변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는 학생들로 실체가 아닌 시뮬레이션이

기에 환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수가 수정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18]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간호의 철학을 본질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작은 간호의 효과', '하나가 모여 합작품이 되는 경험', '발달하는 간호술에 대한 적용', '나의 미흡함에 대한 보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국외연구Cooper & Barnett,[19] 중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처음 경험 실습 현장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Akaike, M., Fukutomi, M[20]팀원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시뮬레이션에서 느낄 수 있는 한계에 대해 이해해야 함을 느끼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간호학생들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간호현상에 대해 자신의 미숙함으로 느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동료들과 함께 하여 보충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뮬레이션 교육에서는 간호술의 발전보다는 협업을 통한 채워질 수 있음에 대한 간호철학을 사전에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간호', '두려움을 뛰어넘는 간호', '철학이 필요한 간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국내 간호학생의 경우 실습을 통해 두려움을 동료들과 함께 하여 공포감이 저하된다는 Park[21]J.A.Kim[22] 연구와 처음 접하는 시뮬레이션에서의 간호는 혼란을 경험한다는 [23]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의 현상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인간을 이해하는 간호는 시뮬레이션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간호에서도 인간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최근 MZ라 불리는 간호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진다. 인간의 대한 이해와 공감의 형성은 간호철학에서 강조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임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유연성을 형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교육을 통한 간호의 철학과 간호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확인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은 임상에서 경험치 못하는 환자의 반응과 대처법을 대하면서 간호의 슬기가 보다 간호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학습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 References

- [1] Oremann, M. H., Gagne, J. D., & Phillips, B. C. (2018). Teaching in nursing and role of educator.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2] Kang, H. J. & Choe, H. J. (2020).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with Patient Deaths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1), 56-66.
- [3] Lee, J. S., & Ryu, Y. S. (2012). *New Educational Methodology*. Seoul: HakYiDang.
- [4] Kim, Y., Kim, J., Kim, H., Park, S., So, S., Jung, B., et al(2017). Opinions and perceptions on allowing nursing students' practice among inpatients at a university hospital.
- [5] Bond WF, Spillane L. The use of simulation for emergency medicine resident assessment. *Academic Emergency Medicine*. 2002;9(11):1295-1299. <https://doi.org/10.1197/aemj.9.11.1295>
- [6] Kim, H. R., Choi, E. Y., & Kang, H. Y. (2011). Simulation module development and team competency evaluation.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3), 392-400.
- [7] Lee, M. N., Kim, H. S., Jung, H.C., Kim, Y. H., & Kang, A. (2013).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scenario for simulation learning of care for children with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9, 1-11.
- [8] Park, Song Yi(2021). Experiences of Nursing Practicum Using Virtual Simulation among Nursi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9(1), 1-14.
- [9] Lee, Bo Gyeong, Kim, Sun-Hee(2019). The Educational Effects of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Patients Role in the Simulation Practice Education for the Women'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4), 436-447.
- [10] Kang, S. Y., & Lim, Y. J. (2014).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tegrated nursing practice program preceded role-play related to clinical communication situ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3037-3045. <https://doi.org/10.5762/KAIS.2014.15.5.3037>
- [11] Kim, S. O., & Kim, S. M. (2015). Effects of the role play-based practice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5), 2837-2848.
- [12] Jeong, S. H., & Shin, J. H. (2015). A comparative study of the availability and effectiveness of cinema and role-playing in nursing ethic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18(3), 276-295. <https://doi.org/10.5762/KAIS.2014.15.5.3037>
- [13] Seo, Y. H. & Ahn, J. W. (2022).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Attitudes towards Artificial Intelligence Scale fo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8(4), 357-367.
- [14] Krippendorff, K. 2003.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15]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16]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17] Yi, MS & Oh, Sang Eun (2008). Hospital Nurses' Experience of Do-Not-Resuscitate in Korea. *J Korean Acad Nursing*. 38(2), 298-309.
- [18] McLaughlin, S. A., Doezema, D., & Sklar, D. P. (2002). Human simulation in emergency medicine training: A model curriculum. *Acad Emerg Med*, 9(11), 1310-1318.
- [19] Cooper, J., & Barnett, M. (2005). Aspects of caring for dying patients which cause anxiety to first year student n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Palliative Nursing*, 11(8), 423-430
- [20] Akaike, M., Fukutomi, M., Nagamune, M., Fujimoto, A., Tsuji, A., Ishida, K., et al. (2012). Simulation-based medical education in clinical skills laboratory. *Journal of Investigative Medicine*, 59(1-2), 28-35.
- [21] Park, H. J. & Yang, H. J., Byun, E.K. (2021). Effect of good death cognition, self-esteem,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7(3), 71-78.
- [22] J.A. Kim, Nursing student's Thinking about employ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2017), Vol.3 No.4.  
pp83-92.

- [23 ]Kim Yeong-Kyeong, Jo Kae-Hwa, Kim Moung-Ja(2005). The Meaning of Death Seen by Nursing Students through Art Work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17(4), 602-611, pp83-92.